

“야구 = 재미” 호랑이 힘 솟게 만드는 윌리엄스 리더십

“경기 뒤 기억은 지우라”
선수들 성적 부담 덜어주고
신인들 이색 복장 이벤트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추억 선물
최선 다하며 즐기길 강조
호랑이 군단 새로운 문화 개척



구단 첫 외국인 감독이 타이거즈 문화를 바꾸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윌리엄스 사단’을 꾸려 2020시즌을 보내고 있다.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은 화려한 이력으로 먼저 화제를 모았다.

빅리그에서 17시즌을 보낸 그는 1866경기에 출장해 378홈런, 1218타점 타율 0.268을 기록했다. 5차례나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뽑혔고, 3루수로서 4차례 골든글러브와 실버슬러거도 수상한 스타 중의 스타다.

눈길 끄는 메이저리그식 소통과 운영으로 KIA를 이끌고 있는 그는 ‘깜짝 이벤트’로도 KBO리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뒤늦게 공개된 사진 덕에 윌리엄스 감독의 메이저리그식 리더십이 화제가 됐다.

사진에는 타노스, 이소룡,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으로 변신한 KIA 신예선수들이 있었다.

지난달 21일 KIA의 어린 선수들과 매니저 등은 ‘이색 복장’을 하고 서울 원정길에 올랐다. 윌리엄스 감독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루키 헤이징’(Rookie hazing)이라는 이름의 신인 신고식이 있다. KIA에서는 ‘타이거즈 에너지데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기획·연출



‘타이거즈 에너지데이’를 기획·연출한 KIA 윌리엄스 감독(오른쪽 두번째)이 이색 복장을 한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을 맡았다.

구단 관계자들도 모르게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의상까지 구입했다.

‘타이거즈 에너지데이’에 대해 윌리엄스 감독은 “야구는 재미있는 것이다”며 웃었다.

사실 행사가 진행된 날 덕아웃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잠실에서 LG에 연패를 당하고 홈으로 온 KIA는 NC전까지 4연패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8회말 나지완의 동점성리어나 나왔지만 전상현을 출격시킨 9회초 대거 6실점을 하면서 4-10 역전패를 기록했다.

시즌 내내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기억은 지우라’고 강조하는 윌리엄스 감독은 ‘깜짝 이벤트’로 무거운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었다. 덕분에 유쾌한 복장을 한 선수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 숙소까지 갈 수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방송을 가장 많이 탄 선수는 황대인인 것 같다(웃음). 사실 이벤트 시작했을 때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며 “선수들에게 야구는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를 이기든 지든, 우천취소가 됐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야구를 즐겼으면 한다. 그런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벤트를 하게 됐다”며 “선수들이 처음 경험해본 것이기 한데, 모두 잘 즐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윌리엄스 감독의 뇌리에 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살짝 힛트를 준다면 9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 아직 자세한 부분은 말해줄 수 없다”며 웃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루키’ 시절도 떠올렸다.

그는 “아주 옛날 얘기인데 내 선수시절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때는 코크스톰의 이상 이런 게 아니

었다. 팀마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원정 갈 때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갔더니 내 자리에 유니폼이 없 고 다른 의상이 걸려있었고, 신발까지 준비됐던 게 기억난다. 물론 사이즈는 전혀 맞지 않았다”고 웃었다.

그라운드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즐기길 강조하는 윌리엄스 감독. 그래서 괴롭힘을 뜻하는 ‘헤이징’이라는 단어를 빼고 ‘에너지데이’라는 단어를 넣어 타이거즈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첫 코로나 확진자에 ‘비상’

한화 투수 신정락...관련 선수들 음성 판정에 1군 경기 예정대로

첫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한 KBO리그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8월 마지막 밤 KBO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한화 투수 신정락이 지난 31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KBO리그는 물론 국내 프로스포츠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확진 소식과 함께 KBO는 비상 체제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신정락이 최근 재활군에서 머물면서 2군에서 생활했던 만큼 한화 2군 선수들과 최근 1군으로 콜업된 선수 두 명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1일 오후 1시 서산에서 예정됐던 한화와 두산의 퓨처스리그 경기는 취소됐다.

여기에 LG 2군 선수 두 명도 신정락과 접촉한 계

확인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KBO는 1군 경기 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방역 당국으로부터 경기 진행의 안정성을 확인받으면서 이날 잠실(한화-두산), 문학(LG-SK) 경기를 포함한 5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화 2군 선수단과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우려했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

KBO는 서산 훈련장 외부 거주 선수,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7월 25~26일 서산에서 퓨처스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른

LG 트윈스 선수단 검사 등을 하고 있다.

KBO는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히 대상자를 분류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경기 진행의 안정성 여부 확인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각 구단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 등 추가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방역 당국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KBO는 추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선수단의 개별 모임, 타 구단 선수와 악수·식사·동일 이동수단 이용·버스 탑승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KBO리그 코로나 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자)의 범위가 리그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리그 중단여부를 검토한다. 리그 중단 여부는 긴급 실행위원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4일 상무와의 경기 전까지 퓨처스리그 일정은 KIA는 1일 예정대로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용인독립리그 팀과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내야수 김태진과 김선빈이 연습 경기에 나와 실전 테스트를 받았다. 두 사람은 2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윌리엄스 감독의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임성재

우승 178억 페덱스컵, 임성재 -4로 출발

PGA 챔피언십 4일 개막...존슨 vs 람 세계 1·2위 재격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이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19야드)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지난해 10월 개막한 2019-2020시즌의 마지막 경기로 선수들의 대회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여는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승자를 정한다. 출전 선수들이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말에 끝난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보너스 타수를 안은 상황에서 경기에 나선다.

페덱스컵 1위로 이 대회를 시작하는 더스틴 존슨(미국)은 10언더파를 미리 받았고, 2위 윤 람(스페인)은 8언더파,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7언더파 등이 기본 출발 지점이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했다.

임성재의 페덱스컵 순위는 9위로 4언더파를 안고 경기를 시작한다.

임성재는 신인이던 지난해 페덱스컵을 19위로 마쳤다. 한국 선수의 페덱스컵 역대 최고 순위는 2007년 최경주의 5위다.

이 대회 우승으로 2019-2020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르는 선수에게는 페덱스컵 보너스 1500

만달러(약 178억원)를 준다.

이 돈은 시즌 상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회 우승은 공식 우승으로 인정된다. 1400만달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100만달러는 은퇴 연금 형식으로 적립된다.

존슨은 보너스는 500만달러, 최하위 30위를 해도 4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39만 5000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현재 페덱스컵과 세계 랭킹 모두 1위인 존슨은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 우승,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존슨 등 최근 기세가 좋다.

역시 페덱스컵과 세계 랭킹 모두 2위를 달리는 람은 BMW 챔피언십 연장에서 20m 버디 퍼트를 넣고 존슨을 꺾은 상승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현재 페덱스컵 순위 12위에 올라 있다. 만일 매길로이가 우승하면 페덱스컵 사상 최초로 챔피언에 세 번 등극하는 선수가 된다.

지금까지 매길로이 외에 페덱스컵을 두 번 제패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유일하다. 우즈는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는 현지시간으로 금요일인 4일 개막해 월요일인 7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김광현·류현진, 이번엔 웃자

김, 오늘 신시내티전·류, 내일 마이애미전 선발 출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하루 차이를 두고 선발 출격한다.

김광현은 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7시 40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고, 류현진은 3일 오전 7시 40분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 출격한다.

두 선수의 소속팀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등판 일정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승 1패 평균자책점 2.92를 기록 중이다.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다소 흔들렸지만, 8월 이후 예전의 위용을 되찾았다.

8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29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월간 평균자책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피안타율(0.186)은 3위다.

그는 2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기록한 2자책점에 관해 정정을 요구해 1점을 비자책점으로 수정했는데, 나머지 1점도 추가 정정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이 관철되면 평균자책점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홈 경기에서 마이애미와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쳐 6이닝 2피안타 1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올 시즌 4경기에서 1승 1세이브 평균자



류현진

김광현

책점 1.08을 기록했다.

선발로 보직 이동한 8월엔 3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0.57의 ‘특급 피칭’을 펼쳤다.

최근 12이닝 동안 비자책 행진을 펼쳤고, 현지 매체들은 신인왕 경쟁에 김광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김광현은 이날 1.2이닝 이상 무실점으로 막아 내면 0점대 평균자책점도 기록할 수 있다.

전망은 밝다. 상대 팀 신시내티는 올 시즌 팀 타율 0.217로 28위에 머물러 있다. 좌완 투수를 상대로도 팀 타율 0.211로 극심한 부진을 보인다.

지난달 23일 홈 경기에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승을 거뒀다.

/연합뉴스